



가트너 상반기 전세계 휴대폰 · PDA 시장 결산

# 상반기 세계 휴대폰 · PDA 시장 ‘고공비행’

휴대폰 3억 7000만대 ... PDA 703만대

## 〈휴대폰〉

가트너 발표 2005년 상반기 휴대폰 시장은 3억7100만대로 전년 상반기 대비 6000만대나 증가했다. 노키아, 모토로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상위 4사가 경악스러울 만큼 공급량을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 3사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68%나 된다. 점차 메이저 업체 위주로 업계가 재편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상반기 3억7000만대 공급량을 감안한다면 연말 물량은 최소 4억 1000만대 이상 될 것으로 짐작돼, 연간 물량 8억대 돌파도 가능

할 것으로 분석된다.

2005년 상반기 상반기 시장에서 주목할 것은 노키아가 반기 실적 사상 초유로 1억대를 돌파한 것과 모토로라와 삼성전자가 기대를 모았던 박빙의 승부는 예상을 깨고 모토로라의 압승으로 끝났다는 것이다.

1위 노키아는 1억1673만대 공급으로 점유율 31.2%를 차지했다. 작년 동기 대비 2500만대의 공급량 증가와 2.0%의 점유율 상승이었다. 노키아의 상승은 작년에 비해 변화된 시장에 잘 적응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작년 상반기에는 폴더형을 제때 출시하지 못해 점유율 폭락을 면치 못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시장에서 요구한 제

2005년 상반기 휴대폰 실적

(단위 : 천대, %)

구분	1분기		2분기		상반기 합계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	점유율	출하량	점유율	출하량	점유율	출하변동	점유율 변동
노키아	54,943.1	30.4	60,793.9	31.9	115,737.0	31.2	25,110.2	2.0
모토로라	30,293.6	16.8	34,018.1	17.9	64,311.7	17.3	14,574.8	1.3
삼성전자	24,099.0	13.3	24,478.6	12.8	48,577.6	13.1	10,234.1	0.7
LG전자	11,138.6	6.2	12,374.4	6.5	23,513.0	6.3	5,808.5	0.6
소니에릭슨	9,942.7	5.5	11,843.2	6.2	21,785.9	5.9	2,793.2	-0.2
지멘스	9,900.0	5.5	8,894.8	4.7	18,794.8	5.1	-4,313.9	-2.4
기타	40,293.0	22.3	38,095.6	20.0	78,388.6	21.1	6,511.6	-2.0
합계	180,610.0	100.0	190,498.6	100.0	371,108.6	100.0	60,718.5	-

출처 : 가트너

품 라인업을 제대로 갖춘 것으로 평가 받았다.

2위 모토로라는 6400만대 공급으로 점유율 17.3%를 차지했다. 작년 상반기 대비 공급수량 1457만대 및 점유율 1.3% 상승이었다. 2위 업체가 점유율을 1.3%나 상승시킬 수 있었던 힘의 동력은 레이저폰 등 대량판매 휴대폰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리치마켓용 제품 라인업이 풍부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모토로라는 삼성전자와의

공급격차를 1800만대로 벌려, 업계에서 기대를 모았던 박빙의 승부를 무참히 배신해버렸다. 모토로라의 압도적 우위는 삼성의 부진이라기 보다 이 회사가 워낙 잘 했기 때문이다.

3위 삼성전자는 4857만대 공급으로 점유율 13.1%를 차지했다. 작년 상반기보다 1000만대의 공급량 증가를 이룬 것은 역시 삼성전자 다운 저력이었다. 초만간 반기 실적 5000만대 돌파를 기대받는 것은 역시 삼성전자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토로라에게 참패를 당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전자가 당장 모토로라를 제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승부수는 던져볼 만하다는 것이 업계 판단이었던 바,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다.

4위 LG전자는 2300만대 공급으로 점유율 6.3%를 차지했다. 작년 상반기보다 580만대 많은 공급량이었다. LG전자는 분기별로 꼬박 1000만대 이상의 수량을 공급하며 메이저 업체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4위 자리를 완전히 꿰차기는 했지만 3위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심해 한동안은 4위 수성에 전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위 소니에릭슨은 2100만대 공급으로 점유율 5.9%를 차지했다. 작년보다 공급량은 280만대 증가했지만 점유율은 오히려 0.2% 줄었다. 이것이 LG전자에게 4위 자리를 헌납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2005년 1분기** 1분기 휴대폰시장 판매는 1억8000만대로 역대 1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작년 1분기 1억5000만대보다 무려

3000만대 정도 성장했다. 시장 활성화는 서유럽과 북미에서 판매 호조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교체 수요가 많이 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 시장도 시장 활성화에 일조했다. 특히 중국의 새해 특수는 아시아 시장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업체별 1위는 노키아로 5400만대를 판매해 점유율 30%를 유지했다. 전년 1분기에는 4400만대 판매로 점유율 28.8%에 불과했다. 물량으로 1000만대 상승했고, 점유율도 1.5% 정도 증가했지만 역대 1분기 점유율이 35%에 육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키아의 1분기 실적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다.

모토로라는 3000만대 공급으로 점유율 16.8%를 기록했다. 전년 1분기에는 2500만대 공급으로 16.3%의 점유율이었다. 점유율은 비슷하지만 공급수량은 500만대 많았다. 모토로라의 이 실적은 레이저 휴대폰의 판매 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고 가트너는 분석하고 있다.

삼성성은 2400만대 공급을 점유율 13.3%를 달성했다. 전년 1분기 1900만대 보다 500만대 판매 증가를 기록했다. 삼성의 경우 블루 블랙폰 판매호조가 성과였다.

LG전자는 1100만대 판매로 점유율 6.2%를 기록했다. 분기 1000만대 돌파를 달성하는 것으로 세계 4위 위상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지멘스와 소니에릭슨은 9900만대 판매로 LG전자 뒤를 이었다.

**2005년 2분기** 2분기 전세계 휴대폰 판매량은 1억 9050만대로

연도별 휴대폰 출하 실적

(단위 : 천대,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H	
	출하량	점유율	출하량	점유율	출하량	점유율	출하량	점유율	출하량	점유율	출하량	점유율
제조사												
노키아	126,369.0	30.6	139,672.2	35.0	151,421.8	35.8	180,672.4	34.8	207,231.3	30.7	115,737.0	31.2
모토로라	60,094.0	14.6	59,092.2	14.8	64,640.1	15.3	75,177.1	14.5	104,124.2	15.4	64,311.7	17.3
삼성전자	20,639.0	5.0	28,233.5	7.1	41,684.4	9.8	54,475.1	10.5	85,238.4	12.6	48,577.6	13.1
LG전자	-	-	-	-	-	-	26,213.7	5.0	42,276.8	6.3	23,513.0	6.3
소니에릭슨	-	-	26,955.9	6.7	23,112.9	5.5	26,686.3	5.1	42,031.7	6.2	21,785.9	5.9
지멘스	26,989.0	6.5	29,752.8	7.4	34,618.0	8.2	-	-	-	-	18,794.8	5.1
에릭슨	41,467.0	10.0	-	-	-	-	-	-	-	-	-	-
기타	137,173.0	33.2	115,876.6	29.0	107,941.4	25.5	113,009.6	21.7	144,643.7	21.6	78,388.6	21.1
합계	412,731.0	99.9	399,583.2	100.0	423,418.6	100.1	476,234.2	91.6	625,546.1	92.8	371,108.6	100.0

출처 : 가트너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노키아가 여전히 1위를, 삼성은 모토로라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2분기 성장세는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 일본의 2분기 판매대수는 1000만대로 전년동기 1060만대에 비해 다소 줄었다. 가트너는 음악 플레이어나 풀 기능의 웹 브라우저 탑재 휴대폰의 경우, 기변을 촉진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성장세를 견인한 동인엔 이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노키아가 31.9%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 모토로라(17.9%), 삼성전자(12.8%), LG전자(6.5%), 소니 에릭슨(6.2%), 지멘스(4.7%) 순이었다. 노키아의 1위 수성은 버진 모바일 공급을 계기로 CDMA 휴대폰 부진을 만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노키아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북미에서는 3위로 올라섰다.

반면 모토로라는 북미에서 33.5%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서유럽에서도 전년 5위에서 2위로 부상,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PDA>

올 상반기 세계PDA 시장은 703만대로 대로 전년 동기 548만대 대보다 150만대 정도 증가했다. 가트너의 이번 통계는 'iPAQ

6315' 'Nokia 9300' 등 무선 PDA는 포함됐지만, 'Treo 650' 'BlackBerry 7100' 등 스마트 폰은 제외된 것이다.

2005년 상반기 세계PDA 시장 가트너 기준으로 상반기 PDA 시장을 이끈 것은 무선PDA였다. 유럽을 중심으로 노트북을 무선으로 연결시키는 데 PDA가 사용돼 시장 활성화에 일조를 한 것.

상반기 업계 1위는 림(RIM)이 차지했다. 공급 155만대로 점유율 22%였다. 전년 동기 대비 63만대나 많았다. 업계 2위는 팜이 차지했지만 업계 3위 HP와의 격차는 불과 20만대로 좁혀졌다. 팜이 125만대, HP가 105만대를 공급했다.

HP는 1분기에 팜을 불과 13만대까지 쫓아갔지만 2분기에 격차가 19만대로 벌어져 상반기 총 공급량에서 역전은 실패했다.

상반기를 통해 주목할 업체는 노키아와 T-모바일이다. 노키아는 61만대를 공급해 업계 4위에 포진됐다. 심비아OS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까지 포함을 한다면 업계 1위를 차지했겠지만 가트너의 산정 방식이 스마트폰을 제외한 것이어서 업계 4위로 만족해야만 했다. T-모바일은 2분기에 21만대의 물량을 공급하는 깜짝쇼를 펼쳐 순위에도 들기도 했다.

**2005년 1분기** 1~3월기 전세계 PDA 출하대수는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한 340만대로 과거 최고 실적이었다. PDA 평균 판매가

격은 15% 오른 460달러로 이 역시 가트너가 지난 2000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고액이었다. 가트너는 고급 모델의 인기 증가에 따라 평균가격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무선랜이나 휴대폰 기능을 겸용한 PDA가 전체 출하대수의 약 55%를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블랙베리(BlackBerry)를 앞세운 RIM이 팜원(palmOne)을 제치고 1위에 등극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RIM은 전년 동기 대비 75.6%의 증가율을 보여 증가율 마이너스 20.8%를 기록한 팜원을 2위로 밀어냈다. 팜원은 시장점유율에서도 전년 동기의 30.5%에서 18.0%로 감소, 3위 HP(점유율 17.6%)에도 쫓기게 됐다. 4위와 5위는 각각 노키아(9.9%)와 델(6.3%)이 차지했다.

운영체제(OS)별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CE가 점유율 46.0%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 점유율 20.8%의 RIM이 2위 자리에 올랐다. 팜OS는 출하량 감소를 이유로 점유율 20.0%를 차지해 3위로 전락했으며, 뒤이어 심비안이 9.9%, 리눅스가 0.8%로 4, 5위를 차지했다.

**2005년 2분기** 2분기 PDA 시장은 360만대로 전년 2분기 대비 32% 증가했다. 업계 1위는 림으로 84만대 공급에 점유율 23.2%였다. 작년 2분기 대비 64.7% 많은 공급량이었다. 팜은 64만대 공급, 점유율 17.8%를 차지해 업계 2위를 지키기는 했지만 작년 동기 대비 29.7% 공급량이 줄었다. 팜의 추락은 끝이 없었다. HP도 45만대 공급에 점유율 12.5%로 업계 3위였지만 전년 점유율 19.3%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면 노키아와 T-모바일이 신규로 순위에 진입했다. 노키아는 27만대 공급, T-모바일은 21만대를 공급해 선방했다.

### 2005년 상반기 세계PDA 시장 현황

(단위: 대, %)

구 분	1분기		2분기		상반기 합계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	점유율	출하량	점유율	출하량	점유율	출하 변동	점유 변동
림(RIM)	711,000	20.8	840,000	23.2	1,551,000	22.0	636,000	5.4
팜	614,750	18.0	642,020	17.8	1,256,770	17.9	-491,023	-14.0
HP	601,352	17.6	450,513	12.5	1,051,865	15.0	-53,761	-5.2
노키아	340,000	9.9	275,000	7.6	615,000	8.7	615,000	8.7
델	217,000	6.3	-	-	*217,000+	-	-	-
T-모바일	-	-	212,800	5.9	*212,800+	-	-	-
기 타	935,010	27.3	1,195,275	33.1	2,130,285	-	-	-
합 계	3,419,112	99.9	3,615,608	100.1	7,034,720	100.0	1,549,848	-

출처: 가트너

주) \*표시는 발표되지 않은 물량을 감안해야 된다는 의미

### 2005년 상반기 PDA OS별 시장 현황

(단위: 대, %)

구 분	1분기		2분기		상반기 합계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	점유율	출하량	점유율	출하량	점유율	출하 변동	점유 변동
OS업체								
윈도CE	1,573,062	46.0	1,653,638	45.7	3,226,700	45.9	1,119,769	7.5
림(RIM)	711,000	20.8	840,000	23.2	1,551,000	22.0	636,000	5.4
팜 OS	684,750	20.0	678,570	18.8	1,363,320	19.4	-904,070	-22.0
심비안	340,000	9.9	275,000	7.6	615,000	8.7	-	-
리눅스	27,300	0.8	28,000	0.8	55,300	0.8	-7,000	-0.3
기 타	83,000	2.4	140,000	3.9	223,000	3.2	89,740	-
합 계	3,419,112	99.9	3,615,208	100.0	7,034,320	100.0	1,549,439	-

출처: 가트너

OS별로는 윈도우CE가 165만대 공급으로 점유율 45.7%를 기록했다. 작년 2분기 100만대 공급에 점유율 36.6%에 비해 급격한 성장이었다. 2위는 림으로 84만대 공급이었다. 역시 작년 2분기 51만대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증가한 것. 반면 팜OS는 고작 67만대 공급으로 점유율 18.8%에 머물렀다. 작년 동기 114만대 공급에 점유율 41.8%였던 것과 비교하면 끝없는 추락이었다. **K**

글 | 김중용 기자(모바일타임스)